

대법원 판결·금지 입법에도 낙태 증가



▲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지지 집회중인 시위자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 금지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낙태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 '가족계획협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월평균 낙태는 8만2천298건으로 전년 평균(8만2천115건)을 앞섰다.

월별로는 지난 3월 1만565건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월이 8천185건으로 가장 적은 달로 기록됐다.

주별로는 일리노이주(이하 누적 2만1천500건), 플로리다(2만460건), 노스캐롤라이나(1만1천830건), 캘리포니아(8천810건), 뉴멕시코(8천640건) 등에서 높은 낙태 상승을 기록했다. 이들 주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텍사스, 조지아, 위스콘신, 테네시,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등 낙태 시술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주들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다. 이후 지난 7월 기준 앨라배마, 아칸소, 미시시피,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모두 미국의 14개 주에서 임신 6주를 넘길 경우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낙태 금지법을 입법했다.

주택 구매 조건 27년 만에 최악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 27년 만에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으로 상승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탓에 주택 구매 희망자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부동산 정보업체 CBRE에 따르면 매달 나눠 내야 하는 신규 모기지 상환비용은 평균 아파트 월세보다 5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BRE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6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5.50%다. 모기지 금리는 기준 금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10년물 국채의 영향을 받는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5%대를 돌파했고, 미국 주택 구매자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대출상품인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8% 선까지 뛰



▲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 앞에서 있는 주택판매 표지판. 사진=AP연합뉴스

어올랐다.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 가격 상승도 모기지 상환 부담을 늘린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은, 8%에 달하는 모기지 금리에 실수요자가 부담을 느끼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줄어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세인트루이스 “불법입국자 환영”

시카고가 대규모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인근 도시 세인트루이스는 중남미 출신 이주노동자 영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 일부가 조만간 세인트루이스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민자와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민간 비정부기구(NGO)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세인트루이스' (IISTL)는 "세인트루이스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시카고에 머무는 중남미 출신 이주민 가운데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이들을 세인트루이스로 데려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텍사스주 엘패소 지역 멕시코 국경 건너편으로 이민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시카고는 지난 14개월 새 1만9천여 명에 달하는 불법입국자가 이송되면서 거처 마련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당국자들이 "수용 한계를 넘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송 중단을 요구했으나 버스 이송은 계속되고 있다. 시카고가 이들을 세인트루이스로 재이송할 경우 세인트루이스에는 '영구적 이주 노동자' 유치 기회가 될 수 있다.

IISTL은 앞서 지난달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새로운 '라티노 아웃리치 프로그램' (Latino Outreach Program)을 발족했다.

세인트루이스에 정착하는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에게 3개월간 무상 주택 지원, 6개월간 전화·인터넷 서비스 무료 제공, 영어·컴퓨터 교육, 이민·노동 허가 법률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하는 내용이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